

慶北 安東地域語의 敬語法 研究

裴 大 溫

<目 次>

- | | |
|-----------------|----------|
| I. 序 論 | 2. 客體敬語法 |
| II. 現代 標準語의 敬語法 | 3. 相對敬語法 |
| III. 本 論 | IV. 結 論 |
| 1. 主體敬語法 | |

I. 序 論

한 方言의 敬語法 研究는 세 가지 面에서 意識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敬語法에 나타난 各 方言의 特徵에 依해 方言區劃을 設定할 수 있으리라는 期待이고, 둘째는 方言의 敬語法 研究가 國語敬語法의 本質理解와 보다 完備한 體係化에 도움을 주리라는 期待이며, 셋째는 한 方言의 敬語法을 研究함으로써 그 地域 사람들의 社會的·階層的 構造를 알 수 있으리라는 期待이다.¹⁾

이러한 立場에서 本稿는 記述言語學的(descriptive linguistics)인 面에서 慶北 安東 地域語의 敬語法을 調査 分析함에 學界에 一助가 되었으면 한다.

本 地域은 1962年 11月 21日 安東郡 安東邑에서 市로 승격한 安東市로 現在 行政區域이 18個의 行政洞으로 面積은 44.49 km²이며 人口는 約 10萬 2千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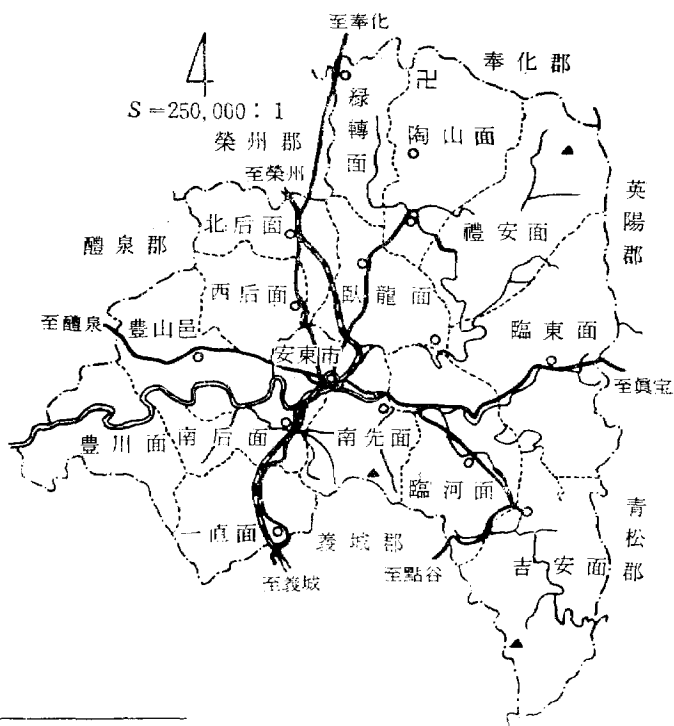
安東市는 慶北 北部地方에 位置해 서울과 272 km 떨어져 있으며 大邱와는 127.5 km 東西地方은 東部에 있는 嶺南山을 主峰으로 하는 산악에 싸여 南으로 향하여 平野를 이룬 平坦한 位置에 市街地가 이루어져 있다. 남쪽은 洛東江이 東에서 西로 흘러 山勢가 높기로 이름나 있는 반면 交通이 不便한

1) 李翊燮, 「嶺東方言의 敬語法 研究」, 서울대학교 教養課程部 論文集 第六輯, 1974, p. 49.

곳이다. 이같이 交通이 不便하고 大都市와 交流가 없어 30年前 政府수립 당시의 安東邑 人口는 不過 4萬餘名이었으며 20餘年間 發展 없는 消費都市로 알려지고 있었다. 특히 住民들은 封建的 思想에 젖어 住宅樣式과 衣服에 신경을 많이 썼으나 70年代부터 政府의 國土開發事業에 힘입어, 安東大邱間의 道路 擴張 包裝 및 店村, 盈德間의 國道擴張으로 因하여 店村—安東—眞寶間에 하루 5百餘대의 車輛通行이 있게 되었다.

現在 安東市는 靑松, 英陽, 義城, 榮州, 奉化 等地가 一日 生活圈內에 들며 77年 內務部로부터 慶北 北部地方의 據點都市로 指定²⁾되 멀지 않아 大都市로 發展케 되어 言語의 相互流通이 심하게 일어날 것으로 본다. 하기에 方言에 對한 調查 體係化는 어느 地域이든 時急한 狀況에 놓여 있다고 하겠

安東郡 略圖



2) 嶺南日報社 刊行, 慶北年鑑, 1979, p. 66.

다. 그러나, 갖가지의 어려운 與件으로 因하여 이의 절실함에 비하여 作業은 극히 제한적이며 부분적인 점이 없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인 듯 하다.

本稿의 調查地點은 安東市를 中心으로 安東郡의 14 個面을 포함하여 安東郡 境界를 이루는 奉化郡, 英陽郡, 青松郡, 禮泉郡, 榮州郡에 이르기까지 安東地域의 尊待語 方言圈을 設定하고자 한다.

Informant에 對해서는 調查地域에서 出生한 居住者로 하되 十代, 四十代, 六十代의 三階層을 選擇하였으며 어느 정도 生活水準(한글해독 정도)의 사람을 택하였다. Informant를 이렇게 定한 까닭은 方言의 敬語法은 音韻이나 語彙의 調查方法과는 달라야 하겠다는 생각이다. 즉 音韻이나 語彙 調査는 Informant의 單純한 言述이라고 한다면 敬語法의 調査는 單純한 言述이 아니라 對象에 따라서 諸者가 어떻게 말하는가가 더욱 重要하기 때문이다.

揭報者 相互間의 階層에 따라 蒐集되는 方言資料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런 資料만이 必要하기 때문이다.³⁾

특히 金重鎭의 <全北 高敞 地域語의 敬語法 研究>와 李翊燮의 <嶺東方言의 敬語法 研究> 등의 論文에서 資料分析, 記術方法 등에 많은 힘을 입었다.

그리고 調查方法은 물론 自然採取法을 擇하여 실제 錄音器를 들고 Informant와 직접 상대함에 있어 해당 地域에서 필자의 뜻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가 갈만한 사람을 통하여 Informant 相互間에 對話를 나누게 하고 필자는 隱身하여 錄音을 함으로써 정확을 기함에 만전을 다하였음을 부기하여 둔다.

II. 現代 標準語의 敬語法

安東地域語의 敬語法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現代 標準語에서의 敬語法이 대충 어떻게 等分되고 있으며 接尾辭의 쓰임이 어떤지 概觀해 봄으로써 安東地域語의 敬語法 特徵이 더 한층 明瞭해질 것이다.

現代 標準語 敬語法도 學者마다 조금씩 그 等分の 差異가 있으니 다음에 보이면

3) 金重鎭, 「全北 高敞 地域語의 敬語法 研究」, 全北大學校 國語國文學會 刊行, 國語文學, 1976, p. 179.

等分	金敏洙 ⁴⁾	姜馥樹 ⁵⁾	金宗澤 ⁶⁾	한국국어교육연구회 ⁷⁾	최현배 ⁸⁾
1	下稱	極卑稱	下稱法	해라체	아주낮춤
2	半稱	普通卑稱	平稱法	하계체	예사낮춤
3	平稱	普通尊稱	半稱法	하오체	예사높임
4	中稱	極尊稱	準上稱法	하시오체	아주높임
5	上稱	반말	上稱法	하소서체	
6	極稱				

위 表와 같이 尊稱의 程度에 따라 等分함에 약간씩의 差異가 있음을 분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尊卑法에 따른 終結語尾를 보면

金敏洙님은

等分	叙法	平 叙	疑 問	感 歎	命 令
下	稱	—다	—냐?	—구나	—어라
半	稱	—어	—어?	—군	—어
平	稱	—네	—나?	—구로	—게
中	稱	—오	—오?	—군요	—오
上	稱	—니다	—니까?	—니다그려	—시오
極	稱	—나이다	—나йка?	—나이다그려	—소서

라고 區分하여 놓고 특히 極稱은 보통 잘 쓰이지 않으며 축원이나 정중한
文章에서나 나타난다.⁹⁾라고 하였으며 姜馥樹님은 終結語尾는 聽者와의 尊卑
關係에 따라서 表現에 높임의 等분이 있다.¹⁰⁾고 전제하고

4) 金敏洙, 「國語文法論」, 一潮閣, 1977, p. 286.

5) 姜馥樹, 「國語學概論」, 韓國語文學會編, 螢雪出版社, 1977, p. 135.

6) 金宗澤, 「國語學要論」, 文教出版社, 1975, p. 121.

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고등국어문법」, 향문사, 1966, p. 123~135.

8)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77, p. 236.

9) 金敏洙, 「國語文法論」, 一潮閣, 1977, p. 290.

10) 姜馥樹, 「國語學概論」, 韓國語文學會編, 螢雪出版社, 1977, p. 135.

等分 \ 叙法	叙 述	疑 問	請 誘	命 令
極 卑 稱	-는다	-느냐?	-자	-어라
普通卑稱	-네	-는가?	-세	-게
普通尊稱	-(으)오	-(으)오?	-(으)버시다	-(으)오
極 尊 稱	-(으)버니다	-(으)버니까?	-(으)버시다	-(으)버시오
반 말	-아	-아?	-아	-아

위와 같이 分類하였으며, 金宗澤님은 尊卑法의 계층에는 다음 5가지가 있다.¹¹⁾고 하여

等分 \ 叙法	平 叙 法	疑 問 法	感 歎 法	命 令 法	請 誘 法
下稱法(해라체)	-다	-느냐?			-자
平稱法(하게체)	-네	-는가?			-세
半稱法(반말체)	-해	-해?			-지
準上稱法(하오체)	-하오	-하오?			-요
上稱法(읍니다체)	-버니다	-버니까?			-버시다

와 같이 하였으며, 한국 국어교육 연구회編에서는 用言에는 尊卑法이 있다 하여

等分 \ 叙法	叙 述 形	疑 問 形	命 令 形	請 誘 形	感 歎 形
해 라 체	-다, -ㅁ, -(으)마	-느냐?	-아라, -어라	-자	-구나
하 게 체	-네, -세, -게나	-나?	-게	-세	-그러
하 오 체	-(으)오, -(으)리다, -구려	-(으)오?	-(으)오	-버시다	-구려
하 시 오 체	-버니다, -(으)시구려	-버니까?	-(으)시오	-버시다	-(으)시구려
하 소 서 체	-나이다, -(으)오리다, -진저	-나이까?	-(으)소서	-사이다	-고녀

11) 金宗澤, 「國語學要論」, 文教出版社, 1975, p. 121.

※ “하소서체”는 주로 古語的인 표현에서나 쓰이는 말이다.

※ 위에 든 것 외에 “반말”이라는 게 있다. “반말”이란 平交間에 흔히 쓰이는 정다운 말이다.¹²⁾

라고 하였으며, 최현배님은 말 높임 정도에 따라 대체로 네가지의 등분으로 가르치나니

等分	叙法	물	음	배	품	시	킴	괴	임
아주낮춤(極卑稱)		—느냐?		—다		—거라		—자	
예사낮춤(普通卑稱)		—가?		—네		—게		—세	
예사높임(普通尊稱)		—오?		—(오)구려		—오(구려)		—비세다	
아주높임(極尊稱)		—시비니까?		—시비니다		—시비시오		—시비세다	

이러¹³⁾고 하였다.

그리고 現代國語 尊敬의 相應에는 現代國語 尊待法은 體言, 助詞, 用言으로써 表示되고, 用言의 경우에는 그 尊待하는 대상의 다름에 따라 「主體」, 「客體」, 「相對」의 세가지 尊待法이 나뉘게 된다.¹⁴⁾라고 하였다.

本稿에서도 이에 따라 尊敬의 相應을 三分하여 論할까 한다.

그리고 이 地域에서 敬語法 관계를 調査하던 중 다음과 같은 特殊한 點을 發見할 수 있었다. 즉 마랫말(安東地域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筆者가 보기로는 마루의 말, 다시 말하면 傳統的인 大家門에서 아랫 사람에게 쓰는 듯 하다.)과 傳統的으로 大家門을 이루지 못한 一般 庶民層의 言語 사이에 몇몇 가지 差異點을 發見할 수 있어 매우 흥미롭다.

예를 들면

(A 群)	(B 群)
아제 ↘	아제 ↗
어매	어다이
아배	아바이
할뻬	할배
아지뻬	아지뻬

12)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고등국문법」, 향문사, 1966, p. 123~125.

13)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77, p. 808.

14) 허응, 「서기 15세기 국어의 존재법과 그 변천」, 한글 제128호, 1961, p. 13.

等等에서 (A群)의 말들이 大家門의 말이고, (B群)의 말이 그렇지 못한 경우의 말이다. (A群)의 「아지뻬」과 (B群)의 「아지뻬」은 똑같이 表記되었으나 (A群)의 경우 「아지뻬」은 「口」이 強하게 들리고, (B群)의 경우는 「口」이 弱하게 發音되고 있다. 이와 같이 言語位相的인 面이 보여 상당한 관심 사이나 이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여기서는 略하기로 한다.

Ⅲ. 本 論

1. 主體敬語法

主體敬語法은 話者가 文章 敘述語의 主體(곧 主語)를 自己와 對比해서 높임으로써 이루어지는 敬語法이다.

例

- ① 아버지 장아 갖니껴? (話者는 孫子, 聽者는 祖父)
- ② 아버지 가실라니껴?
- ③ 호뎡이 들고 가시오.
- ④ 너 아바이 갖다. (話者는 祖父, 聽者는 孫子)

위 例文에서 ②③은 主體敬語法에 있어 話者가 敘述語의 主體를 自己와 對比해서 「-시니껴」, 「-시오」를 사용하여 尊敬의 뜻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①의 경우는 話者와 主體인 「아버지」 사이에 尊待表現이 되지 않았다. 그것은 主體보다 聽者가 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는 話者와 主體와의 關係는 無視되고 話者와 聲者와의 關係가 고려되었다고 하겠다. ④의 경우는 話者와 主體인 「아바이」 사이에 尊待表現이 역시 되지 않았다. 즉 話者와 主體와의 關係에 있어 話者가 主體보다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당연하다. 그리고 主體와 聽者 사이의 關係는 無視되고 있다. 이것은 現代語에서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즉

할아러져 이겨 아버지께 갖다 드립까요?

이와 같은 使用例가 더러 發見되긴 해도 原則的인 것은 아니다.¹⁵⁾

15) 成者徹, 「國語待遇法 研究」, 忠北大學 論文集 第4輯, 1970, p. 36.

話者が主體보다 上位의 人物이라 하더라도 聽者가 主體보다 下位人物이라면 主體敬語法이 成立된다.¹⁶⁾라고 하는 말은 安東地域語의 敬語法에서는 成立되지 않는 것 같다.

- ⑤ 선생님이 가지네.
- ⑥ 형 술 자신다.
- ⑦ 너 아버지 저녀 자시나?(話者 母, 聽者 子)

에서 선생님과 형이 「—시—」로써 尊敬을 받는 것은 말하는 話者보다 上位의 人物이기 때문이다.

- ⑧ 니 애비 있나?(話者 祖父, 聽者 孫子)
- ⑨ 니 애비 밥 명나?(話者 祖父, 聽者 孫子)

話者가 上位의 階層이기 때문에 主體가 尊敬을 받지 못한다.

- ⑩ 아빠 미영이 갖니더.(話者 父, 聽者 祖父)
- ⑪ 할배요, 아버지 장아 갖니겨?(話者 孫子, 聽者 祖父)

이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겠다. 「—니더」와 「—니겨」는 聽者에 對한 尊待이지 主體에 대한 尊待는 아니다. 뿐만 아니라 話者가 손아랫 人物이고 聽者가 손윗 人物이라 하더라도 尊敬의 意思 有無와는 관계 없이 主體尊待가 表面的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즉

- ⑫ 할매, 니 했나?
- ⑬ 어매 왔네.
- ⑭ 어매야, 빌 사오께.

等等으로 安東地方에서는 母系에 對해서는 거의 下待(해라體)를 하는 경향이다.

用言이 重出인 경우엔 어떤 식으로 主體敬語가 쓰이는지 살펴 보기로 하자. 즉 先後 어느 用言에 敬語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同一 主語에 對하여 重復되는 文의 基本型은 大體로 다음 세 가지로 區分된다.¹⁷⁾고 하

16) 李翹燮, 「國語敬語法의 體系化 問題」, 國語學 第二輯, 1974, p. 42.

17) 成善徹, 「國語待遇法 研究」, 忠北大學 論文集 第4輯, 1970, p. 39.

찾다.
주

- ① C-V₁-V₂
- ② S-V_a-V
- ③ S-V-V_{aux}

※ S=主語, V=動詞, V₁, V₂=各各 敘述語, V_a=V의 限定語, V_{aux}=助動詞

①型 S-V₁-V₂은 同一 主語에 對한 敘述語가 重復해서 나타나는 경우이니 즉 同一 主語인 두 文의 結合形이다.

- ㉮ 아부지요, 스 메고 가실타니까?
- ㉯ 낫 나 두고 가지(이)소.

위와 같이 敘述語가 重復될 경우 끝 敘述語에 「-시-」가 붙는 경우이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 ㉺ 아부지요, 저녁 자시고 가지(아)소.
- ㉻ 형님요, 술 자시지 마시(이)소.

②型 S-V_a-V의 경우에는

- ㉼ 무경거 들고 오셨니까?
- ㉽ 선성님이 오면서 그랬니까?

위와 같이 ②型에서도 역시 뒷 敘述語에 「-시-」가 쓰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③型 S-V-V_{aux}의 경우에는

- ㉿ 선성님은 가지 마시(이)소.
- ㊱ 할배요, 신문 일거 보셨니까?
- ㊲ 아부지요, 편지 일거 보셨니까?

本動詞인 「가지」, 「일거」에는 「-시-」가 연결되지 않고 助動詞에만 「-시-」가 연결된다.

2. 客體敬語法

客體敬語法은 文章에서 客語를 높임으로써 成立되는 敬語法이다. 즉 話者가 主體와 客體間의 尊卑關係를 따져 主體에 謙讓, 客體에 尊敬의 待遇를 부여함으로써 成立한다.¹⁸⁾

이런 경우 安東地域語에서는 話者가 最上位의 人物일 경우에는 敬語法이 成立되지 않는다.

- ① 니 애비한테 갖다 줘라.(話者 祖父, 聽者 孫子)
- ② 니 애비 대구 가라고 해라.(話者 祖父, 聽者 孫子)
- ③ 니 애미 밥 던나?(話者 祖母, 聽者 孫子)
- ④ 니 애미 밥 먹나?(話者 祖母, 聽者 孫子)

한편 現代國語의 客體敬語法에 대하여 살펴보면,

선생님께 드린다.(또는 올린다.)
 어머니께 여쭙어라.
 아라님을 모시고 간다.
 선생님을 뵈옵고저 합니다.

위 보기에서 「드리다, 올리다, 여쭙다, 모시다, 뵈옵다」 따위의 말들은 각각 「주다, 말하다, 테리다, 보다」의 존대말인데 이러한 尊待法을 客體尊待라고 부르는 것이다.

아버님께서 책을 읽으신다.
 이 책을 아버님께 올려라.

위의 두 글에 있어서 「읽으신다, 올려라」는 다 같이 「존경어」 이므로 앞의 말은 그 「주체」인 「아버님」을 높이는 것이요, 뒤의 것은 그 「객체」(여기서는 여격으로 표시됨)인 「아버님」을 높이는 것이다. 다 같이 「아버님」을 높이는 하되 「아버님」은 이 두 글에 있어서 그 成分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주체」(주어로서 표시되는 지시물—referent)를 높이는데 「드리다, 올리다」 따위 말을 사용할 수 없는 반면 「객체」(객어로서 표시되는 referent)를 높이는데 「—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존대법 사이에는 엄연한

18) 金重鎮, 「全北 高敬地域語의 敬語法 研究」, 國語文學, 1976, p. 190.

구별이 있음은 詳論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¹⁹⁾라고 하였다.

安東地域에서는 이러한 경우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살펴보면

- ⑤ 할배한테 갖다 드려다.
- ⑥ 할배 도시고 가져라.
- ⑦ 할배한테 인사 드리고 갈라다.
- ⑧ 아버님 뵙고 가니께?
- ⑨ 학장님께 여쭙 바라.
- ⑩ 가서 살벼라.(사피다의 명령형)

以上 몇몇의 경우에 한하여 客體尊待가 있을 뿐인 듯 하다.

3. 相對敬語法

相對敬語法은 話者와 聽者의 關係로만 이루어지는 敬語法이다. 하기 때문에 話者가 聽者를 어느 정도로 높이느냐에 따라 等分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높이는 정도에 따라 現代語에서는 앞에서 밝힌 바(Ⅱ. 現代標準語의 敬語法)와 같이 4~6等分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다른 地方의 方言에 나타나는 相對尊待의 等分을 살펴보면 南原方言에서는(崔泰燦의 尊待法 研究)

- ① 평대 --ne
- ② 하대 --nta
- ③ 존대 --tmnita, --so, --jo
- ④ 반말 --a, --ce

嶺東方言에서는(李翊燮의 嶺東方言의 敬語法 研究)

- ① 해라체 --다/--는다/--는다, --라, --아/--어, --지, --구만
- ② 하계체 --네, --과, --글쎄
- ③ 하우체 --아요/--어요, --대요
- ④ 합쇼체 --배다/--습니다

全北 高敞地域語에서는(金重鎭의 全北高敞 地域語의 敬語法 研究)

19) 러웅, 「서기 15C 국어의 존대법과 그 변천」, 한글 128 호, 1961, p. 11.

12 嶺南語文學(第6輯)

- ① 해라체(下待) —너
- ② 하게체(平待) —자네
- ③ 하시오체(尊待) —양반, —당신
- ④ 하소체(最尊待) —으르신

慶南方言에서는(金永泰의 慶南方言 終結語尾의 敬語法 考察)

- ① 上稱
- ② 中稱
- ③ 等稱
- ④ 下稱

濟州島方言에서는(玄平孝의 濟州島方言의 尊待法)

- ① 肅敬體(尊待)
- ② 平敬體(平待)
- ③ 下敬體(下待)

安東地方에서는(申昌淳의 慶北 安東地方의 尊待法)

- ① 니더체
- ② 요체
- ③ 오체

以上 보는 바와 같이 現代 敬語法에서와 같이 六等으로 나누어지는 地方은 없다. 이것은 社會生活의 단조로움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安東地域語에서의 等分은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면

- ① 진지 좀 드시쇼.
- ② 아부지요, 어메 가시니껴?
- ③ 아버님 가실라니껴?
- ④ 어서 오시쇼.
- ⑤ 할배 주무시니껴?
- ⑥ 할배 죽 자시니껴?

이 경우 話者는 孫子가 아니면 며느리, 아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시아버지에게 하는 尊待로서 極尊待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 ㉑ 밥 잡수쇼.
- ㉒ 어서 입으쇼.
- ㉓ 꼬치장 먹으쇼.
- ㉔ 새가 나라 가니더.
- ㉕ ○○맥 장아 가시더.

손윗사람 혹은 어려운 입장이나 혹은 빚을 할 수 있는 사이라도 예의를 지키는 경우에 쓰이는 것으로 尊待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다음에는
平待로서

- ㉖ 밥 머으쇼.
- ㉗ 일 좀 하쇼.
- ㉘ 호랭이 들고 가쇼.

등이 쓰이고 있는 바 이는 무난한 친구 사이거나, 혹은 아랫 사람이지만 下待를 쓸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고 있다.

下待인 경우

- ㉙ 껌 : 라(먹으라).
- ㉚ 해라(하여라).
- ㉛ 자 : 라(자거라).
- ㉜ ○○맥 장아 갈래?

以上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安東地域에서의 敬語의 等分을 筆者는 넷으로 나누고자 한다. 즉

- ① 極尊待
- ② 尊待
- ③ 平待
- ④ 下待

여기에서 相對敬語法은 叙述語의 終結語尾에 依해서 表示되는 바 이 점에 한하여는 現代 文法에서는 前項에서 밝힌 바와 같거니와 여기서는 叙述形, 疑問形, 命令形, 請誘形, 感嘆形 등으로 나누어 記述하고자 한다.

1. 極 尊 待

敘述形：—시니더, —이더, —(이)스시더, —으시더

- ① 집에 기시니더.(제십니다.)
- ② 사발이 크이더.(큘니다.)
- ③ 씻시더.(소입니다.)
- ④ 말잇시더.(말입니다.)
- ⑤ 아잇시더.(아닙니다.)의 말대말, 즉 肯定은 겠시더, 컷시더.(그렇습니다.)이다.
- ⑥ 감시더.(가겠습니다.)
- ⑦ 봄시더.(보겠습니다.)
- ⑧ 찾음시더.(찾겠습니다.)
- ⑨ 먹시더.(먹겠습니다.)

이 경우 「가거라」, 「보아라」, 「찾아라」, 「먹어라」의 명령에 대하여 「으시더」꼴은 敘述形의 終結語尾이기는 하지만 話者의 約束履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약속꼴」의 형태라 할 수 있겠다.²⁰⁾

疑問形：—니꺼, —실라니꺼, 시니꺼, —이꺼

- ① 장아 가니꺼?(갑니까?)
- ② 장아 갔니꺼?(갔습니까?)
- ③ 찾니꺼?(찾습니까?)
- ④ 왜잇니꺼?(왜 이렇게 합니까?)
- ⑤ 와겠니꺼?(와 제십니까?)
- ⑥ 왜그니꺼?(왜 그렇게 합니까?)
- ⑦ 죽니꺼?(죽습니까?)
- ⑧ 장아 가실라니꺼?(가겠습니까?)
- ⑨ 할말 제시니꺼?(제십니까?)
- ⑩ 얼네나 높으이꺼?(높습니까?)

이 중에서 「가니꺼?」는 「갑니까?」로서 현재 진행형으로 쓰이는 것 같다. 즉 장보러 가는 도중에 아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교환의 말로서 「가니꺼?」이다. 그리고 「갔니꺼?」는 「갔습니까?」하는 뜻으로 이웃집에 가서 「○○

20) 으시더의 「약속꼴」 형태라고 보는 것은 中昌淳의 「慶北 安東地方의 尊待語」에서도 역시 같은 결해를 보이고 있다(高麗大 國文學 七號, 1963).

백 장아 갖니겨?」하고 그집 어른에게 묻는 경우로서 「장에 가고 없느냐?, 있느냐?」하는 물음이지만 사실은 「가고 없을 것이다.」하는 기대 쪽에서 묻는 것으로 과거형으로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가실라니겨?」는 가벼운 미래 사실의 뜻을 내포한 의문형이라 하겠다.

命令形 : -시소, -시더

- ① 할배요, 매구 가지소.
- ② ○○백 장아 가지더.(가십시오.)

「가지더」는 請誘形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2. 尊 待

叙述形 : -니더, -이더, -께요, -데이, -네요

- ① 집에 가니더.(갑니다.)
- ② 안 데니더.(안 됩니다.)
- ③ 먹니더.(먹읍니다.)
- ④ 전화 왔니더.(왔습니다.)
- ⑤ 그러이 : 더.(그렇습니다.)
- ⑥ 밥 머께요.(먹겠습니다.)
- ⑦ 아버지요, 가니메이.(갑니다.)
- ⑧ 사람이 가네요.(갑니다.)

疑問形 : -꺼

- ① 그르껴?(그렇습니까?)

命令形 : -(으)소, -시더, (-데이)

- ① 머으소(먹으시오)
- ② 일소(읽으시오)
- ③ 잘 가지더(갑니다, 가시오)
- ④ 잘 가지메히: / (갑니다, 가시오)

/-시더/形은 命令形語尾로도 쓰이지만 다음에 보이는 바와 같이 請誘形으로도 쓰인다.

즉 「○○백 장아 가지더」인 경우에 가지더는 「갑니다.」라고 하는 請誘形이다. 다만 액센트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가지더」와 「가지더」의 차이 뿐인 듯 하며 「가지메히:」도 역시 명령형으로 쓰이는 바 이것은 「가지더」

와 비교하여 여성 쪽에서 더 많이 쓰이는 듯 하며 특히 친절 혹은 친숙한 감정 내지 話者와 聽者 사이에 아주 친밀한 경우에 「가시더」 보다는 「가시더히:」가 주로 쓰이는 듯 하다. 그리고 특기하고 싶은 「가시더」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命令形, 請誘形 뿐만 아니라 應諾形으로도 쓰이는 듯 하다.

즉 함께 일을 하다가

「안 잘라니겨?」에 대한 대답이

「가시더」로 나타내어 「간다」의 뜻을 지니게 되어 함께 행동할을 볼 수 있다. 요약하면

가시더, 가시게히: (命令形)

가시더 (請誘形)

가시더 (應諾形)

請誘形: -시더

- ① 강아 가시더. (잡시더.)
- ② 좀 잊시더. (잊음시더.)
- ③ 해 보시더. (봅시더.)

3. 平 待

平待 즉 소위 하체체는 반말로서 言衆들 사이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듯 하다. 安東地域의 몇 곳에서는 아직도 20代가 30, 40代 以上の 人物에게 소위 옛부터 내려오는 常人의 집안 사람이라 하여 平符를 하는 것이 심심찮게 발견되었으나 여기서는 거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같은 연령층의 남자라 해도 전통적인 大家門의 집안에서는 향련과 戚屬間에 있어 相互間의 관계여하에 따라 敬語法의 使用이 연령에 관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조차, 더우기나 친어머니, 친할머니가 아니라 하여도 집안 손윗 여자인 경우에는 平符를 하는 경우 또한 많아서, 安東地域語에서의 敬語는 경우에 따라서는 人間關係와 社會關係, 姓氏別 等等 때문에 一般의인 敬語驅使의 心理面²¹⁾과는 거리가 먼 듯한 감을 가지기도 한다.

叙述形: -〈라〉네, -〈을, 를〉외, -래요

21) 大石初太郎, 「新版 正しい 敬語」, 大泉書店1971, p. 48~74에서 말하는 ①相對方 尊重의 心理, ②相對方에 對한 距離感의 心理, ③公式的·儀禮的인 心理, ④威嚴·品位·輕蔑·反語의 心理, ⑤親愛의 心理, ⑥商業主義의 心理

- ① 갈라내.
- ② 분쇠.
- ③ 우리 집이래요.
- ④ 갈꺼래요.

여기에서 약간의 문제가 되는 것은 「-요」이다. 相對尊待말로 주로 「니더」形이 쓰이고 이른 바 「요체」는 「니더체」에 섞여 쓰이면서 그를 補助하는 구실을 이루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 「니더체」를 補助하려 나서는 지는 자세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주로 叙述形에 많은 듯 하며 간혹 疑問形에도 나타나기도 하나 「니더」 따위에 비하여 그 使用은 극히 한산한 편이다. 이는 申學淳님도 견해를 같이 하는 것 같다 함에도 不拘하고 申님은 「요체」를 설정하여 항목을 달리 함에는 좀 어떨까 한다.

疑問形：-ㄴ(는)가, -요

- ① 갈라는가?(갈 것입니까?)
- ② 갈른가?(가겠는가?)
- ③ 알른가?(알겠는가?)
- ④ 먼데요?(무엇입니까?)

命令形：-소, -게, -세

- ① 가소.
- ② 가게.
- ③ 보게.
- ④ 잘 가세.

「가세」의 경우는 請誘形으로도 쓰인다. 그러나 命令形의 「가세」와 請誘形의 「가세」는 다음에 보이는 바와 같이 억양에 차이점이 있는 듯 하다.

請誘形：-세

- ① 이 사람 가세.
- ② 나 좀 보세.

感嘆形：-세, -내

- ① 침 분세!
- ② 바스내!

4. 下 待

下待 즉 해라체의 語尾形態를 보면

敘述形: 一다, 一(너)네, 一꺼, 一테이, 一드라, 一케, 一래

疑問形: 一(ㄹㅇ)나, 一그래, 一는(ㄹ)가, 一는(ㄹ)데, 一노, 一로, 一(이, ㄹ)라, 一꼬

命令形: 一(어)라, 一거라, 一ㄹ나, 一왜

請誘形: 一자

感嘆形: 一테이, 一사다

調査된 資料를 整理해 보면 대충 위와 같은 語尾를 分析해 낼 수 있다. 다음에 이들에 對한 用例를 보면

敘述形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역시 「一다」로서

- ① 밥 먹는다.
- ② 장아 간다.
- ③ 물다.(모르겠다.)

와 같이 쓰이며,

「一네」의 경우에는

- ① 링아 가네.
- ② 영수 가네.
- ③ 소카(술) 사왔네.
- ④ 나오리(나온다.)와 같이 쓰이며

「一케」의 경우에는

- ① 할대한테 인사하고 가께.
- ② 널 사오께, 와 같이 쓰이며

「一테이」의 경우에는

- ① 가 집에 잇테이~
- ② 미영이 학교 갔테이~

와 같이 쓰이며,

「드라」의 경우에는 一人稱이나 二人稱 主語의 敘述語에는 나타나지 않고 三人稱 主語의 敘述語에 나타나는 尾語로서

- ① 가 집에 잇드라.
- ② 너 아바이 집에 잇드라.

와 같이 쓰이며,

特殊한 形態로는 「-께」가 있으니 그께(그렇다)와 같이 쓰이는 바 그 用例가 맞지 않다.

그리고 吸入語(들숨소리)로서 그래(맞다, 좋다, 그렇다)가 쓰인다. 역시 用例가 맞지 않다.

疑問形 語尾는 種類가 매우 다양하게 쓰임을 알 수 있으며 더우기나 상황에 따라 다채롭게 나타나고 있다.

먼저 「-나」의 경우에는

- ① 집에 있나?
- ② 니 애비 장아 갖나?

等으로 쓰이며,

「-나나」와 「-오나」의 경우에는

- ① 밥 먼나?
- ② 밥 명나?
- ③ 갈라나?(갈의사의 有無를 묻는 경우다.)

①의 경우 「먼나?」는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대한 의문형으로서 過去時制에 해당하는 것이라 한다면 ②의 경우 「명나?」는 먹고 있는 상태 즉 현재진행 상태에서의 의문형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밥을 먹고 있는 사람에게 「니 밥 명나?」하는 식으로 묻는 것이다.

「-르래」의 경우에는

- ① 장아 잘래?
- ② 대구 잘래?
- ③ 뒤 썰래?

等으로 쓰이며,

「-는(ㄴ)」의 경우에는

- ① 죽었는가?
- ② 가는가?

等으로 쓰이며,

「-ㄴ(는)데」의 경우에는

- ① 어데 잇는데?
- ② 모오 켜데?

等으로 쓰이며,

「-노」의 경우에는

- ① 왜거노? (왜 그러느냐?)
- ② 머하고 노노? (노느냐?)

等으로 쓰이며,

「-로」의 경우에는

- ① 뭐로? (무엇이나?)

等으로 쓰이며,

「(이 : 큰)라」의 경우에

- ① 범이라(범(虎)이나?)
- ② 오 : 캐라? (정말이나? 옳으나?)
- ③ 잘라?
- ④ 안될라?

위의 경우 「잘라?」와 「잘라나?」가 그 쓰임에 있어 樣相을 엄격히 달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잘라?」인 경우에는 「잘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可能性을 묻는 경우이니, 다시 말하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간다」는 자체에 대한 可能性 與否에 대한 물음이니 때에 따라서는 흔히 「가내나?」, 「먹어내나?」, 「해내나?」 等々으로 씀을 많이 볼 수 있다. 「-내나」 역시 疑問形語尾의 一種으로 따로 세움직도 하나 「잘라?」인 경우와 「가내나?」의 경우 內容相 差異는 전혀 없는 듯 하며 단지 「잘라?」보다 「가내나?」 쪽이 주로 두메산골이나 아녀자 혹은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계층에서 주로 사용되는 듯 하여 「-라」 하나로 뭉뚱그린다. 그리고 「잘라나?」의 경우에는 갈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물음으로 「잘라?」와 「잘라나?」는 확연한 差異가 있다고 하겠다.

「-꼬」의 경우에는

- ① 해 블라꼬? (해 보려고 하느냐?)

命令形語尾 「-(어)라」의 경우에는

- ① 너 아바이 대구 가 : 라 그래라.
- ② 니 대구 가 : 라.

「-거라」의 경우에는

- ① 가거라.
- ② 자거라.

等으로 쓰이며,

「-너나」의 경우에는

- ① 온나.(오너라.)
- ② 가 온나.(가지고 오너라.)

等으로 쓰임에 現代語에서와 같이 「-너라」形은 쓰이지 않는 듯 하다.

請誘形語尾는 주로 「-자」가 많이 쓰인다.

- ① 가자.
- ② 놀자.

感嘆形語尾로서는

- ① 조테히:!
- ② 참, 잘 그린테히:!
- ③ 본테히:!
- ④ 널테히:!
- ⑤ 범잇다!

等과 같이 「-데히」와 「-스다」가 쓰인다.

그리고 使用頻度가 많으면서도 몇몇 語彙의 경우에만 해당하여 쓰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도 있다.

즉

하까요? 가까요? 자까요? 보까요? 머까요? 오까요?

等의 물음에 대하여 許諾의 뜻으로

해라 왜 가라 왜 자라 왜 바라 왜 머라 왜 온나 왜

等으로 상대에 대한 人格을 다소 무시하는 듯한 기분에서 다정한 감정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명령의문형(問:보까요?에 대한 答:바라 왜<보아라, 누가 못보게 하느냐?의 뜻이므로))의 특수꼴로 一種의 許諾形이라 하면 어떨까 한다. 「해라 왜」의 경우에는 所有에 對한 許諾일 경우도 있고 行爲에 對한 許諾일 경우도 있다. 즉 이것 내 하까요?(所有에 대한 의문문)에 대하여 「해라 왜」의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내가 하까요?(行爲에 대한 의문문)에 대하여도 역시 「해라 왜」하여 許諾을 하는 것이다.

IV. 結 論

지금까지 安東地域語의 敬語에 對하여 대충 살핀 바를 가지고 다음에 정리하여 結論을 맺고자 한다.

1) 安東地域語의 主體敬語法에서는 話者가 主體보다 上位의 人物이면 主體敬語法이 成立되지 않으며, 話者가 上位의 人物이라 하더라도 聽者가 主體보다 上位의 人物인 경우에도 主體敬語法은 成立되지 않는다. 다만 母係인 경우에는 例外인 듯 하다.

2) 主體敬語法은 叙述語에 先語末語尾에 「-시」가 쓰이며 用言이 重出될 경우에는 주로 뒷 用言에 「-시-」가 介入되지만 前後 用言에 다 붙는 경우도 있다.

3) 客體敬語法은 역시 現代標準語에서처럼 「드리다」, 「모시다」, 「뵈다」, 「여주다」, 「사뢰다」 등의 몇몇 어휘에 한하여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4) 安東地域語에서의 相對敬語法은 그 等分을 넷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極尊待

② 尊待

③ 平待

④ 下待

5) 安東地域語에서 쓰이고 있는 相對敬語의 語尾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叙 法	極 尊 待	尊 待	平 待	下 待
叙 述 形	—시니더	—니더	—(라)네	—다
	—이더	—이더	—리(을, 를)쇠	—(내)네
	—(이)스시더	—께요	—래요	—께
	—모시더	—데이		—데이
		—네요		—드라
				—께
				—래

疑問形	—니꺼 —실라니꺼 —시니꺼 —이꺼	—꺼	—(ㄴ)는가 —요	—(ㄴ, ㅇ)나 —르래 —(ㄴ)는가 —(ㄴ)는데 —노 —로 —(이, ㄹ)라 —꼬
命令形	—시소 —시더	—으(소) —시더(—데이)	—소 —게 —세	—(어)라 —거라 —ㄴ나 —왜
請誘形		—시더	—세	—자
感嘆形			—씨 —내	—데이 —스다

6) 「—시더」와 「—왜」는 各各 約束形, 許諾形이라 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參 考 文 獻

- 1) 李翊燮, 「嶺東方言의 敬語法 研究」, 서울대학교 教養課程部 論文集 第六集, 1974.
- 2) 「慶北年鑑」, 嶺南日報社刊, 中外出版社, 1979.
- 3) 金重鎭, 「全北 高敞地域語의 敬語法 研究」, 全北大學校 國語國文學會 刊行, 國語文學, 1976.
- 4) 金敏洙, 「國語文法論」, 一潮閣, 1977.
- 5) 姜馥樹, 「國語學概論」, 韓國語文學會編, 螢雪出版社, 1977.
- 6) 金宗澤, 「國語學要論」, 文教出版社, 1975.
- 7) 「고등국문법」, 한국국어교육연구회, 향문사, 1966.
- 8)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77.
- 9) 허웅, 「서기 15C 국어의 존재법과 그 변천」, 한글 제 128 호, 1961.
- 10) 成者徹, 「國語待遇法 研究」, 忠北大學 論文集 第七輯, 1970.
- 11) 李翊燮, 「國語敬語法의 體系化 問題」, 國語學 第二輯, 1974.
- 12) 申昌淳, 「慶北 安東地方의 尊持語」, 高麗大 國文學 七號, 1963.
- 13) 大石初太郎, 「新版正訃敬語」, 大泉書店, 1971.
- 14) 玄平孝, 「濟州島方言의 尊待法」, 국어국문학 74 號, 1977.
- 15) 金錫得, 「한국어 尊待形의 擴大構造」, 人文科學 20 輯, 1968.
- 16) 金永泰, 「慶南方言 終結語尾의 敬語法 考察」, 경남대학 論文集 第四輯, 1977.